

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

▶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



본회는 지난 1월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, AI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.

이와 관련 본회는 각 회원사에 소속 농가에 대한 예찰, 농가 출입구의 생석회 도포 및 소독조 설치·운영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B홀(구 인도양홀)에서 열릴 '2011 치킨 페스티벌' 행사와 관련 설명회도 함께 가졌다.

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

▶ 매일 전국 가금농가 전화예찰 실시

본회는 지난해 11월부터 AI 상시 방역과 관련 비상 근무조를 편성,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.

상황실에서는 농림수산물부와 국립수의과학

검역원 등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파상황을 회원사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.

또한 매일매일 전 직원이 전국 철새도래지 부근 10k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육계 및 토종닭, 산란계, 종계, 오리, 메추리 등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해 폐사수수, 사료섭취이상유무 등과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농가의 경우 해당 시·군 가축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.

한편 본회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가금농가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.

'2011 치킨 페스티벌' 입찰공고 PT 실시

▶ (주)엑스코그룹코리아 선정



본회는 지난 1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홍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'2011 치킨 페스티벌 행사 총괄기획 및 운영 대행 용역'과 관련 PT를 실시한 결과 1차 협상대상자로 (주)엑스코그룹코리아(대표 박천길)가 선정됐다.

이에 따라 오는 4월 14일~16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B홀(구 인도양홀)에서 '2011 치킨 페스티벌'을 개최기로 했다.

본 행사와 관련 세부 사항은 (주)엑스코그룹코리아와 논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.

AI 방역 관련 계열사 대표자 회의 참석

▶ AI 발생 지역에 초생추 입식 자제

지난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육계 계열화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AI 방역대책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시가 발생한 지역에는 초생추 입식을 자제(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전남 나주지역에 소재한 농가에 병아리를 입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아래 사항을 다시 요청, 본회는 회원사에 정부의 AI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- 아래 -

가.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는 당분간 초생추 입식 금지(자제)

나. 1월 10일 이후 병아리 입식을 금지 요청한 지역에 신규로 병아리를 입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비 및 각종 정책 자금 차등 지급 검토

전국 도축장(닭·오리)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

▶ 세척 및 소독 철저히 실시

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닭·오리 도축장에 대하여 소독(어리장, 차량 등) 여부 및 출하 육용

오리에 대한 「농장에찰(검사)증명서」 발급여부 등 AI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도축장에서는 아직도 차량(어리장 포함)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도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.

이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공문 발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전국 닭·오리 도축장에 대한 AI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전달했다.

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국 닭·오리 도축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.

- 아래 -

- 닭·오리 도축장 출입 차량 소독 강화
 - 도축장을 출입하는 모든 가금관련 차량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, 특히 어리장에 대한 소독 강화
 - 소독시설에 대한 동파 방지 등으로 항시 소독이 가능토록 조치
 - 관련 규정 위반시 신속한 고발 등 행정조치 강화
- 전국 닭·오리 도축장 일제 소독 실시
 - 매주 1회 이상 도축장 내·외부 등 전체 소독 실시(도축이 없는 날 지정)
 - 농관원 상주직원은 소독실시 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는 「소독실태 점검결과」 내역에 추가로 제출하고, 유선상으로도 보고
- 전남 오리 도축장(4개소) 방역 강화
 - 경계지역의 오리도축장에 항시 가축방역

관을 상주토록 하고, 가족방역관의 지도 하에 도축 허용

- 경계지역과 비경계지역산 오리 도축 시간대를 구분하여 도축하고 구분 도축 간 작업 후 필히 소독 실시 후 순차적 도축

전국 이동통제 초소 운영 강화

▶ 초소 근무자 점검사항 준수토록 지도 감독

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닭·오리 생축운반차량·왕겨운반차량·축산물(계란 등) 운반차량·남은 음식물운반차량 등은 시·도에 신고하고 시·도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운행토록 했으며, 출하 육용오리 및 토종닭에 대하여는 오리의 경우 「농장예찰(검사)증명서」를, 토종닭의 경우에는 「차량운송기록부(토종닭)」를 차량운전자가 소지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차단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.

그러나 일부 이동통제초소에서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이동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각 시·도에 「전국 이동 통제초소 근무자 필수 점검사항」을 보내 각 시·도에서 이동통제 초소 근무자가 동 점검사항을 필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할 것을 시달렸다.

이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공문 발송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‘월간 닭고기’ 2월호 ‘e-그림 세상’ 이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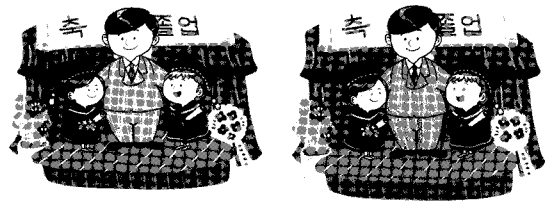
▶ 응모자 중 3명 추첨 경품 제공

지난 1월 새롭게 바뀐 ‘e-그림 세상’ 이벤트에 많은 애독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.

2월호 문제는 아래와 같으며,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중 다른 부분 5군데를 체크해 성명, 주소, 전화번호와 함께 적어 ‘e-그림 세상’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된다.

퀴즈 마감은 오는 2월 22일(화)까지이며, 정답자 중 3명을 추첨, 닭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(경품은 바뀔 수 있음). 자세한 내용은 ‘e-그림 세상’ P97를 참조.

〈문제〉



■ 1월호 정답자

- 김경순 강원 춘천시 효자2동
- 박인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
- 이은진 서울 강동구 성내2동

■ 홈페이지 : www.chicken.or.kr

■ 이메일 : hj@chicken.or.kr